

# 안정적 · 체계적 도시주거환경 조성

### 익산시, 2030년까지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

익산시가 2030년까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안 등 구도심 정비방안 등을 수립해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2030년까지 적절한 주택수급 계획으로 안정적 주거환경 미관상을 제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관계 부서장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만 의무대상이지만 시는 재건축·재개발 및 공동주

택 사업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해 선제적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제시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총 145만 5,473.9㎡면적에 28개소로 △재개발사업 137만2,501.1㎡, 25개소(94%) △재건축사업 8만2,972.8㎡, 3개소(6%)이다.

특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후보지 중 실현가능성과 정비시급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주택 수요 및 공급량 분석 결과에 따른 2030년까지 익산시 주택 수급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주택건설 2019천세대 총량으로 설정해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 소규모 아파트 제한 난개발을 지양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 되도록 선제적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진단에 따라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전북 평균인 1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 공급 조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진행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 미륵산성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6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 호국보훈의 달 익산 미륵산성으로

###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만한 곳 선정

익산 미륵산성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6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시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산성여행으로 테마를 정하고 익산 미륵산성'을 추천했다.

미륵산성은 우리나라 4대 고도 익산이 갖추고 있는 고대왕국 4가지 요소(왕궁, 국가사찰, 관방시설, 왕릉)중 관방시설이다.

미륵사 배후에 있는 미륵산(해발 430m)의 최정상부와 그 북쪽 봉우리를 잇는 능선이 성벽을 이루며, 각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그 사이에 계곡부를 감싼다. 산성의 둘레는 1.82km에 이르며 13개소의 치

(雉)와 동문지·남문지가 남아 있다.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하여 '기운성'이라고도 불리우는 미륵산성은 발굴 조사를 백제 때 축조되어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걸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륵산성과 함께 미륵사지, 백제왕궁(왕궁리유적), 국립익산박물관 그리고 왕릉인 익산 쌍릉을 함께 둘러보면 찬란했던 백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천 관광지인 미륵산성이 선정된 만큼 미륵산성과 더불어 백제왕궁 등 백제역사유적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경제·타당성 높아”

### 익산시, 구체적 근거 마련

익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이 1.29로 경제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150병상 기준 건립비 130여억원의 사업규모로 순현재가치(NPV)가 188억원에 달해 통상 비용대비편익(B/C) 평가가 1을 훌쩍 넘어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비용항목으로는 토지 가격, 건축비, 기타비용 등이, 편익항목으로는 교통비 절감, 보호자의 돌봄 시간 절감, 삶의 질 개선 등이 고려됐다.

시는 지난 23일 이길용 한센총연합

회 회장 및 한센정착촌 4개 마을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종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 확보와 함께 한센인 평균 연령은 80세로 고령이며, 장애인 현황은 74.9%로 전문적 치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많아 요양 병원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왕궁지역 한센인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소록도 등에 강제 이주됐다가 1948년 왕궁면에 요양소 소생원 설립을 시작으로 한센인 다수가 익산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전국 한센인구의 10%가 전북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 한센 인구의 54%가 익산시

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은 아직도 차별과 편견 탓에 병원 치료조차 어렵기 때문에 한센인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센인들은 국가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며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을 건립해 남은 생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센인 요양병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 순항

군산시가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추진으로 기업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상용차 생산량 감소에 따른 도내 부품업체 일감 감소 해소와 생산 차량의 지속적인 판매량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지역 내 민간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민관 상생 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 매출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투자기업, 제품개발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자

금을 조성해 3년간 총사업비 240억원(도비 60, 시군비 60, 민자 120)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수입에 의존해 온 상용차 부품 및 시스템 기술을 지역 부품업체가 단기간에 개발하고 투자기업은 구매 확약을 통해 제품을 즉시 상용화하는 수요기반형 기술개발 사업이다.

차량의 실내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앙기 로드맵에 있는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안전 시스템 등과 공동 부품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

동차 부품업체의 3천억원 정도의 매출액 증가와 312명 정도의 직·간접적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돼 지역경제·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투자기업으로 타타 대우상용차(주), 제품개발기업으로 12개 부품업체가 선정돼 '2023 더센' 준중형 트럭 대시보드 일체와 에어서스펜션 시트 6개 모듈 단위 부품개발을 완료해 양산에 돌입, 부분변경 모델에 적용해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aT연계 사회공헌활동·식생활 실천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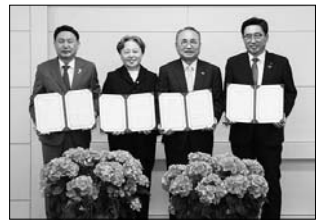
군산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업무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동반성장·윤리 등 ESG 가치를 확산하고 로컬푸드 소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성당은 단팔뿔 5,000개를 기탁해 취약계층 및 이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임준 군산시장과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대우식품, 이성당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여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 로컬푸드를 활용해 지역다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적극 동참,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추진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탁식에서 기부받은 단팔뿔 5,000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무상으로 팔을 공급, 대우식품에서 팔안금 제조 및 이성당에서 단팔뿔을 생산해 기부물품을 공급 받아 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영유아 등 57개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구제역 청정지역사수 총력

익산시는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 구제역 발생상황을 문자·전화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 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했다.

구제역소독약품인 생석회를 조기공급하고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방역취약 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지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공급 및 긴급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읍·면·동 행정력을 집중해 전화예찰, 긴급백신 접종여부, 구제역 임상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임상증상 발견 시 지역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현장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 학호마을 축산단지 '명품 힐링숲' 탈바꿈

익산 왕궁면 학호마을 일대가 축산단지에서 명품 힐링 숲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새만금 수질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왕궁면 정칙농원 매입사업에 이어 축산부지를 매입해 총 3,238㎡ 규모로 제1호 바이오순환림 명품 힐링 숲 공원을 준공했다.

환경 오염원인 축사 일원이 편백나무 등 생장이 빠르고 탄소흡수력이 뛰어나다. 이에 경제적 가치가 큰 수종으로 이뤄진 바이오순환림으로 변모했다.

100여 그루의 대왕참나무, 편백나무 2,700주의 관목 등이 숲을 이뤄 여가활동, 산림치유, 건강증진 등 힐링 휴양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학호마을 힐링숲은 왕궁면 특수지역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국비지원 근거 부재로 축사 매입사업에서 제외됐으나, 새만금유역 3단계(21년~30년) 수질개선 대책 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